

7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어닝 개막 앞두고 혼조..다우 0.2%↑</p>	<p>8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어닝시즌 개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보험권 혼조세로 마쳤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14.81포인트(0.18%) 상승한 8,178.4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0포인트(0.06%) 오른 1,747.17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47포인트(0.17%) 하락한 879.56을 각각 기록했다.</p> <p>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와 어닝시즌 개막을 앞둔 불안감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음. 이후 하락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권에 턱걸이했음.</p> <p>IMF는 이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3%에서 -1.4%로 소폭 하향 조정했음. 장 마감을 앞두고 소비주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반등에 기여했음. 장중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에너지 및 상품주도 낙폭을 축소했고 이날 진행된 미국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견조했던 점도 투자심리를 지지했음.</p>
<p>IMF, 내년 세계 경제전망 상향..올해 전망은 하향</p>	<p>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제시했던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3%에서 -1.4%로 소폭 하향 조정했음.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미국, 일본 등의 경제 위축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가 종전 예상보다 견조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가별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 조정했음. IMF는 그러나 세계 경제가 여전히 위축 국면에 놓여 있으므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음.</p>
<p>유가 엷새째 하락</p>	<p>국제 유가는 엷새째 하락, 7주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경제와 함께 원유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난주 원유 재고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유가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79달러(4.4%) 내린 60.14달러에 마쳤고 이는 지난 5월19일 이후 7주만에 최저치. 유가가 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임.</p>

제목	주요 내용
日미쓰비시-佛푸조, 하이브리드카 개발 제휴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와 프랑스의 푸조 시에트랭그룹이 플러그 접속식 (plug-in) 하이브리드 개발을 통해 기존 친환경차 제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니혼케이지이신문이 보도. 미쓰비시차는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해 왔고, 푸조는 디젤엔진 하이브리드 상용화를 위해 작업 중. 이처럼 두 업체가 준비 중인 하이브리드 차가 다르지만 비용 절감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부품 조립과 개발 등에서 협력키로 했음.
4월 재정수지 누적적자 10조..`3월보다 감소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누계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조5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지난 3월 12조4,000억원 적자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11조1,550억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1조2,090억원으로 나타났음.
`신성장 R&D로 투자 견인` 26개 프로젝트 확정	8일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총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는 2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지난 4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국회예산이 확정 후 접수된 기업들로부터 274개 과제가 접수됐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26개 과제를 선정. 바이오제약과 그린카에 각각 300억원, LED응용에 250억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35억원, 로봇응용에 100억원 등 8대 분야 26개 과제에 총 1,550억원이 지원됨. 바이오제약분야에는 삼성전자(005930)가 이수엠피지스(086890)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를 비롯해 셀트리온(068270)의 유방암 치료제, LG생명과학(068870)의 비만치료제 등의 과제가 뽑혔음.
LG전자, DTV 반도체 사업 확장한다	LG전자는 지금까지 북미식 DTV 수신칩을 자체 설계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생산 및 판매해왔음. 이번 사업은 북미식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각 국가별로 채택한 방송 표준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는 것. 지식경제부가 8일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프로젝트 26개에는 LG전자가 `글로벌 DTV SoC`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있음. 정부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이 향후 5년내 모두 중단됨에 따라 향후 DTV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따라 세계 최대의 DTV칩 팹리스 기업인 LG전자가 국내 파운드리를 이용할 경우 연구개발의 국산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